

성시신문 Magazine

Chuncheon Holy City Movement



성시화 | 50주년

성시화는 삶이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춘천성시화 50주년 희년 대성회”를 마치고...”

저는 하나님의 낙하산 사랑을 받았습니다.

기획특집

마마클럽 「마리아」 처럼 기도하고
「마르다」 처럼 일하다.

춘천에서의 선교훈련과 퍼스펙티브스

기획연재

무스목사가 본 춘천 주변지역의 유교사회

강원도 특별자치도법 시행을 앞두고

“관계”로 살펴보는 춘천성시화 운동의 의미

문화에 빠지다

맛 기행 안되는 식당

영화이야기 기도하는 남자 영화감상 김복동

책속의 책 사도신경 | 선행과 상금 | 마음의길

건강 기침 민간요법

247

September 2022



창간1998
춘천성시화운동본부
Chuncheon Holy City Movement

Contents

Chuncheon Holy City
Movement

성시화 | 50주년

- 03 성시화는 삶이다 | 이연희 목사
- 05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춘천성시화 50주년 회년 대성회”를 마치고... | 김종익 목사
- 07 저는 하나님의 낙하산 사랑을 받았습니다. | 안경민 선생

기획특집

- 09 마미클럽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일하다. | 춘천마미클럽
- 11 춘천에서의 선교훈련과 퍼스펙티브스 | 민경원 장로

기획연재

- 13 무스 목사가 본 춘천 주변 지역의 유교사회 | 김동정 장로
- 16 강원특별자치도법 시행을 앞두고 “관계”로 살펴보는 춘천성시화 운동의 의미 | 조용호 박사

문화 | 영화 | 책 FOOD MOVIE BOOK

- 18 맛 기행 | 예수의 미소 시즌② 안되는식당
- 19 영화이야기 | 기도하는 남자 김춘배 화백
- 21 명화감상 | 김복동
- 22 책속의 책 | 정숙현 전도사
- 23 건강 기침 민간요법 | 이시형 원장



춘천성시화운동본부 후원하기

신협 131-005-937566 (춘천성시화운동)

춘천성시화운동본부 QR코드 후원참여에 들어가시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
참여

성시화는 삶이다

이연희 목사(아미교회)

춘천성시화 50주년 회년대성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다.
이제 성시화 50주년을 뒤로 보내고, 미래 100년을 내다보면서 성시화가 무엇인가?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다양한 각도에서 성시화를 조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마디로 축약한다면 성시화는
삶이다. 신앙생활이라 하듯이 생활이라 함은 삶이라는 것이다. 각종 프로그램과 캠페인이
넘치는 시대를 살면서 우리에게 진정 요구되는 것이 삶이다. 삶이란 반복이요, 지속성을
내포하고 있고 책임성을 동반하고 있다.

선교 130년 속에 성시화 50주년이 흘러갔다. 구호를 외친다고, 이론을 정립한다고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날마다의 일상에서 진행되는 우리의 삶이 성시화를 이뤄가는
조석이요, 가장 영향력 있는 운동이다.

성시화는 삶이고, 신앙도 삶이다. 선교도 삶이요, 목회도 삶이다.

이번 성시화 강사 중 한 분인 이수훈 목사님께서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삶”이라고 외치셨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삶을 산다는 것이다.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낸다는 것이다. 쉽지 않은 일이나, 우리의 믿음은 삶으로
표현해내야 하는 것이다. 삶이 없는 신앙은 진정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 일회성의 행사와
대회로 이를 수 없는 커다란 효과와 영향력은 삶으로 매일 순간을 살아내는 것이다.



(사진 : 춘천성시화운동 50주년 회년 대성회 성시 지도자 포럼)

예수님 없는 신앙인, 교인이 많다고 한탄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진정한 삶이 수반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다. 입술의 말이 아니라, 말이 삶이 되고 삶이 역사를 이룰 때 성시화가 되고, 운동이 되어 새로운 시대의 모델이 되는 것이다.

삶이란 연합과 화합이다. 혼자의 삶이 아니라 교회와 교회, 성도와 성도 간의 연합과 화합된 삶이 성시화로 귀결되는 것이다.

지난 7월에 예수운동 하는 예수서원, 예수변증인문학당의 대학생들과 미국에 다녀왔다. 선교운동 30년을 하신 현역 목사님께서 예수 없는 선교, 예수 없는 목회에 대해 깨닫게 되어 예수님을 삶으로 변증하고, 예수님을 삶 속에서 높여드리는 것이 선교요, 목회라고 말씀하셨다.

예수운동을 일으키고자 인문학을 통하여 예수님을 변증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에 선교사, 목회자, 대학생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자들이 큰 감동과 은혜를 받고 우리의 삶의 자세와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며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다.

성시화도 교회와 교회가, 성도와 성도가 연합하고, 화합하여 예수님을 삶 속에서 높여드리고 인정하는 삶을 실천하는 것이다. 삶으로 전 시민에게 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시화다.

결론적으로 성시화는 삶으로 운동을 일으키고 도시 전체를 거룩한 도시로 만들 수 있다. 선교 130년 속에 발맞춰 부흥발전을 이룬 성시화 50주년 회년대성회를 잘 마쳤다. 큰 기쁨과 은혜의 잔치를 마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참여한 성도들과 교회에 감사의 인사도 전하며, 앞으로의 성시화 50년을 기대하면서 성시화 100년의 역사를 그려본다.



(사진 : 춘천성시화운동 50주년 회년대성회 청년연합찬양)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춘천성시화 50주년 회년 대성회!’를 마치고...”

김종익 목사 (춘천광명장로교회)

짧은 3일간의 대성회였지만 매우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춘천이 성시(聖市)화가 되어 가고 있나?”는 먼저 “춘천의 하나님을 믿는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이 성심(聖心)이 되어 가고 있나?”로 집착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난 뒤에, 감사와 천국 가는 행복한 마음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야겠다는 것도 가져야 합니다.

“내 남편, 남의 남편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하고, 내 아내, 남의 아내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구별할 줄을 알아야 한다.”는 강사님의 말씀이 마음에 크게 와닿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쟁이(예수님 믿는 전문가)가 되었기에 먹어야 할 것인지 이제는 버려야 할 것인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예수꾼(예수님께 폭 빠진 사람)이 되었기에 따라가야 할 것인지, 이제는 돌아서야 하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예수쟁이는 교회가 제일 좋아야 합니다.” 저를 비롯한 춘천의 하나님을 믿는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이 성심(聖心)이 되어 가십시오.



(사진 : 춘천성시화운동 50주년 회년대성회 춘천목회자연합 찬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잠언 16:33)

제가 섬기는 춘천광명장로교회는 비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라!”로 정하고, “하나님이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 주셨습니다.”를 많이 경험하며 신앙심이 깊어지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리드리며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품 추첨에서 재미를 못 보는 목사입니다.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가 없습니다. ㅋㅋㅋ

그런데 이번 대성회 중 목회자들이 특별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드리는 둘째 날 주일 저녁에, 충인성결교회를 섬기시는 함몽인 장로님, 정창숙 권사님께서 특별경품으로 기증하신 100평 공기청정기(시가 천만 원)를 하나님께서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이사장 이수형 목사님의 큰 손을 통해 춘천광명장로교회를 제비 뽑아 주셨습니다.

이런 기적이 저에게 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ㅎㅎㅎ

저는 교회 이름을 기록한 종이도 조그마하게 찢어서 넣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날 “할렐루야! 세상에 이런 일이” 하며 흥분되어 강단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적을 낳기 위해 심은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파송된 필리핀 사공세현 선교사님 자녀 중 첫째, 둘째 아이들이 한국대학에 입학하려면 한국 문교부에서 인정하는 필리핀 고등학교를 나와야 하는데, 그러려면 입학금과 1년 치 교육비가 만만치 않다는 선교사님의 문자와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거쳐 1년 치 교육비 500만원(2명 분)을 지원하기로 하였고, 고등학교까지 교육비를 우리 교회에서 지원해주기로 한 그날,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마음을 기뻐하시며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갈렙이 외쳤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민수기 14:8)는 말씀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춘천광명장로교회 모든 교우들은 또 한 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되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항상 살펴보고 심은 대로 거두도록 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께 큰 박수와 할렐루야로 영광 올리드렸습니다.”

“심은 것에 배로 채워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무한 감사 영광을 다시 한번 더 올리드리며, 어려운 결정을 해주신 함몽인 장로님, 정창숙 권사님께 고마운 마음을 또 한 번 더 전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시편 126:5,6)



저는 하나님의 낙하산 사랑을 받았습니다!

안경민 선생 (춘천 S병원 간호파트)

저는 이번 춘천성시화 회년대성회를 통해 ‘하나님의 낙하산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는 지난 52년 동안 친절과 시댁, 양쪽 집안 모두 하나님만 빼고 너무 많은 우상을 섬겨왔습니다. 산신, 부처님, 칠성님, 조상님들과 스스로 집안을 일으킨 영웅으로 대접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우상으로 받들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치매와 고관절 골절로 병중인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외아들이인 남편에 대한 편중된 사랑으로 생긴 남매들 간의 갈등과 그로 인해 오롯이 제 몫으로 남겨진 희생의 시간들 속에서 심신이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우상을 섬겼지만, 누구에게도 진정한 보상과 위로를 받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설령 위로하는 자가 있어도 저만의 고뇌와 피로감에 와 닿지 않았으며, 돌아서면 해결책을 못 찾고 해매는 어리석음과 씁쓸함이 있었습니다.



지난 7월 말, 저는 코로나 후유증으로 다니는 병원 수액센터에서 수액을 맞는 도중 담당 의사선생님이자 한 교회의 안수집사님이신 이정환 집사님의 짧은 기도를 받을 수 있었고, 그 기도 속에서 알 수 없는 따뜻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 오직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듯 느껴지는 하나님의 존재감은 태초부터 저를 알고 계셨고, 제 모든 성장과 고통, 아픔과 고뇌를 다 알고 계시는 듯했습니다. 저는 요란하지 않은 조용하고 깊은 사랑과 위로를 경험했고, 이것은 말로 다 표현이 안 되고, 뜨거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로 인해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었던 제 고통이 한순간에 해결되어 더 이상 누구도 미워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저에게는 기성 교회의 찬양과 예배의식에 대한 반발심과 선입견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식으로 교회 예배에 참석해 보기로 했고, 제 발로 걸어가 생애 최초의 예배를 사암리 사암교회에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배 내내 뱃속 깊은 곳까지 박혀있던 한 서린 슬픔까지 다 빼내어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더 이상 반항할 이유 없이 하나님께 남은 생애를 다 올려드리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단지 위로받고 싶었을 뿐이었지만 예배는 사람과의 만남이 아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자리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그다음 주로 예정된 3일간의 춘천성시화 회년대성회에도 참석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대성회 첫날, 감사이신 박성민 목사님의 말씀 중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의 목숨과 바꾼 복음의 기쁜 소식이 지금 저에게까지 미쳤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위해 기도해 준 수많은 사람의 얼굴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존재했던 둘째 시누이 정명순 전도사님과 수액센터를 개원하신 이정환 안수집사님과 김운진 집사님, 수액주사를 놔주며 손잡고 기도해 주신 이명자 권사님, 사암교회 목사님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의 기도 속에 그 은혜가 내게 이르렀을까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날과 셋째 날의 예배를 통해서도 저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저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영혼과 육신이 짙어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을 이제 대신 짊어지시려는 예수님의 의지를 인간의 언어가 아닌 영적 언어로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피로했던 육신의 닳아진 연골과 찢든 혈액까지 새로이 바꿔주시고 채워 주시는 듯한 영적 은혜가 깊이 느껴졌습니다. 그로 인해 이제 저는 “하나님 아버지 제 가정과 가족, 그리고 제가 존재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존재하시고 일하시는 성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간절히 올려드리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마마클럽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일하다.

교단, 교파를 초월한 여성도들의 연합, “말씀과 기도가 이끄는 회복”

춘천마마클럽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순수한 여성들이 연합했다. 2008년 부산에서 출발한 기도공동체 『마마클럽 (총대표 조금엽 권사)』이다. 전국 17개 시·도로 확산 되었으며 춘천지역은 11월 29일(화) 오전 10시, 순복음춘천교회(담임목사 이수형) 본당에서 발대식을 한다.

앞서 조금엽 권사가 6월 10일 순복음춘천교회에서 열린 춘천성시화 50주년 블레싱 춘천 연합기도회에 강사로 초청되어 말씀을 전했다. 이를 계기로 춘천지역에도 불씨가 번진 것이다.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이수형 목사와 이병철 목사, 장기동 목사의 적극적인 지지 하에 순복음춘천교회 김화숙 권사를 중심으로 9월 현재 지역사회 400여 개 교회 여성도 200여 명이 동참하고 있다.

김화숙 권사는 “지난 7월 7일, 전주·전북 발대식에도 40여 명이 참석했었다”며 교단, 교파를 초월한 연합의 기도로 대한민국과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몸과 마음을 바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춘천 2022년 『마마클럽』 표어는 “말씀과 기도가 이끄는 회복”이며 1. 나라를 위한 기도, 2. 북한을 위한 기도, 3.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4. 춘천을 위한 기도, 5.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6. 가정을 위한 기도, 7. 선교와 열방을 위한 기도, 8. 마마클럽과 자신을 위한 기도들을 매일 올리고 있다.

이들 가운데 한 부분을 살펴보면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시 68:4)” 요절에 중심을 두고 “준비된 기도자들을 사방에서 불러 모아 생명을 거는 기도의 결사대,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기도의 군대로 일어나 교회를 지키며 춘천과 강원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다.

대표 성구는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사58:12, 62:6~7,10)”를 비롯한 기초를 새롭게 다지고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는 말씀들이다.

이어서 오는 10월 22일(토) 오전 10시에는 서울마마클럽 어머니 금식기도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다. 김화숙 권사는 춘천관내 40여 교회 여성도들의 뜨거운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 전주, 전북지역 발대식에 참석한 춘천지역 회원들 모습)

춘천에서의 선교훈련과 퍼스펙티브스

민경원 장로 (순복음춘천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성시화운동이 시작되어 50주년 희년을 맞는 춘천은 세계열방을 섬기는 많은 선교사들을 배출한 축복의 도시입니다. 교회별 또는 교단별로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던 춘천에서의 선교훈련은 2000년 9월 시작된 선교한국의 MP(Mission Perspectives)가 춘천에서 목회자 및 선교단체 지도자반인 2002년 봄 11기(34명 수료)에 이어, 가을에는 12기(22명 수료)가 진행됨으로써 체계적인 연합 훈련으로 발전되었습니다.

한편, 춘천의 베드로선교문화센터(대표: 조은제 목사)에서 주최한 MPS(Mission Perspectives School)는 선교한국을 비롯한 선교기관의 협력으로 2001년 가을부터 12주의 훈련으로 매년 2기씩 2011년까지 1,000여 명의 수료자를 배출하였습니다. 선교훈련을 통하여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열정을 품은 수료자들이 세계 각지에서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거나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 삶을 살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는 선교한국에서 분화된 선교한국파트너스에서 직접 퍼스펙티브스 훈련(PSP 209기, 331기)을 담당하였습니다. 그 후 베드로선교문화센터에서는 시니어선교한국과 21세기시니어선교회에서 주관하는 시니어 선교학교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진, 2006년 5월 MPS 10기 양화진 선교사묘역 투어)

선교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훈련인 퍼스펙티브스(PSP, Perspectives Study Program)는 1973년 미국의 랄프 윈터(Ralph Winter) 박사가 창시하였으며, 세계기독교운동의 성경적, 역사적, 문화적, 전략적 관점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한국에서는 2000년 가을 선교한국 대회 참가자를 위한 사후 양육프로그램으로 선교한국에서 시작하고 그 후 퍼스펙티브스 훈련을 선교한국에서 독립된 미션파트너스(대표: 한철호 선교사)에 담당하고 있습니다.

퍼스펙티브스 훈련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배우고 그분의 목적을 나의 목적으로 삼는 훈련입니다. 훈련은 12주 동안 주 1회 3시간씩 진행되며 15과로 구성된 커리큘럼으로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세계선교에 참여해야 하는 성경적 이유, 역사 속에서 세계선교의 진행과정, 타 문화권에 복음을 전하는 원리, 세계복음화 완성을 위한 전략 등을 살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선교에 열정을 지닌 교회와 성도들이 선교적 사명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기본적으로 대면 강의로 진행되는 퍼스펙티브 훈련은 최근 코로나 팬데믹 환경에서 온라인으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춘천에서는 순복음춘천교회에서 2019년(PSP 577기), 2020년(PSP 597기)에 대면강의로 개설되어 100여 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이번 가을에도 2022년도 하반기 PSP 709기(춘천 토요일반)가 순복음춘천교회에서 대면으로 개설됩니다. 춘천성시화 50주년을 맞는 춘천의 성도들이 연합으로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힌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사진, 2020년 가을 PSP 597기(춘천 토요일반) 수료식)

무스 목사가 본 춘천 주변 지역의 유교사회

김동정 장로(신성교회, 가톨릭관동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1899년에 미국 남 감리교 선교사로 조선에 들어온 무스(Jacob Robert Moose, 한국명 무야곱, 1864~1928) 목사는 춘천에서 쓴 책[번역본 『1900, 조선에 살다』(제이콥 로버트 무스, 문무홍 외 역, 푸른역사, 2008)]의 서문에

나는 십수 년간 조선에서 살았는데, 그 시간의 대부분을 외부 세계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 사람들과 함께 보냈다. 그 경험은 참으로 흥미진진해서 이 책을 읽는 여러분도 있는 그대로의 조선과 조선 사람들을 만나는 경험을 즐겁게 여길 것이라고 확신한다. 조선에 대해서는 세상에 잘못 알려진 부분이 많다. 나 자신이 대단히 사랑하게 된 조선인들에 대해 독자들이 더 명확한 지식과 더 깊은 애정을 갖게 되는 데 이 책이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 1909년 8월 20일 조선의 춘천에서 제이콥 로버트 무스,

라고 하면서 그는 조선에 대해서는 세상에 잘못 알려진 많은 부분을 바로잡고, 자신이 대단히 사랑하게 된 조선인들에 대해 독자들이 더 명확한 지식과 더 깊은 애정을 갖게 되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집필했다.

무스 목사는 춘천을 중심으로 강원도 시골 마을을 다니며 선교활동을 한 관계로 보아 한국인의 습성과 사고방식, 제도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



(사진 : 빨래터의 아낙네들)

“무위도식하며 전횡을 일삼는 양반계급은 ‘벌레’이며 태어나면서부터 학대받는 여성은 ‘야만’의 희생자들이다”고 표현했다. 산 옆으로 이어진 오솔길을 따라 내려가면 쉽게 마주칠 수 있는 흰옷의 백성들, 평평한 돌판 위에 세탁물을 놓고 얼룩 없이 하얗게 될 때까지 방망이로 두들겨대는 아낙네들! 한국에 대해 깊은 애정을 지녔던 그였지만, 유독 강한 어조로 비판한 것은 양반·남성 중심의 유교식 사고방식과 제도였다. 특히 유교에 연원을 둔 조상숭배야말로 악습의 뿌리라고 보았다. 조혼에서부터 남아선호 사상, 축첩제도, 여성 비하와 차별의 악습이 바로 여기서 비롯한다고 보고 이를 단호히 비판하였다.

조상숭배의식, 곧 제사는 아들만이 치를 수 있고, 장자에게만 집안을 이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그는 유교 자체가 나쁘다고 보진 않았고 타종교에 대한 존중과 이해의식은 분명히 견지했다. 그가 본 유교사회는 다음과 같았다.

조선에서 여인에게 내려지는 지독한 멸시만큼 슬프고 통탄스러운 일은 없을 것이다. 그녀는 모든 면에서 남자의 하위에 있다. 그녀는 유년 시절부터 지각이 없다고 들어왔고, 그래서 스스로 이 말을 굳게 믿게 되어 첩바퀴를 돌 듯하고 있는 집안 살림 외에는 그 어느 것도 배우기를 원하지 않게 된다. 이런 현상은 중하 계층만이 아니라 상류 계층에도 해당된다. 우리 집에서 일어난 일로 이런 사실을 잘 말해주는 실례가 있다. 어느 날 저녁, 지체 높은 한 양반이 부인과 함께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간다며 작별인사를 하러 왔다. 당시 우리는 조선에 온 지 오래되지 않아 조선어를 대부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조선 남성이 영어를 할 줄 알아서 쉽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의 부인은 영어를 할 줄 몰라 내 아내와 서로 대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거기서 그 양반이 말하기를, “그녀는 아무 지각이 없어요, 그것이 당신이 그녀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사실상 그녀는 작지만 총명한 여인이었고, 그녀의 왕이자 주인인 그 남자만큼의 지각을 갖고 있었다.

능력과 상관없이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남성과 남편의 차별과 부림당함을 견뎌야만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여성은 개념이 없다거나 지각이 없다는 식으로 사고하는 것이 가부장제 남성 중심 유교사회가 낳은 폐단이었다. 여성들은 이름도 없어 정체성을 갖기 어렵다. 남편이 ‘우리 집 안사람’이라고 소개하거나 또는 ‘아무개’, 또는 ‘아무개 엄마’,



사진 : 아들을 낳은 여인들의 자랑스런 모습
(그린정원 블로그 : 프랑스 기자가 찍은 조선 아낙네들)

‘~~댁’이라 불리기 십상이다. 남편은 부인을 반말로 대하고, 아랫사람처럼 대한다. 아내는 밥상에 남편과 함께 앉지 못하고, 식사 도중 시중을 들기만 한다. 식사가 끝나 밥상을 내와 부엌에서 혼자 끼니를 때우는 경우가 일상적이었다. 아이를 낳지 못하거나 시어머니에게 말대꾸라도 할라치면 죄인이 되어 쫓겨나거나 이혼당할 수밖에 없었다.

무스의 눈에 비친 조선의 여성은 능력과 충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남성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당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불합리한 약자, 그 자체였다. 자기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모른 채 ‘도살장에 끌려 나오는 양’ 처럼 혼인식을 올리던 하얀 가면의 신부들! 교육기관인 서당에서 여성은 공부를 할 수 없었고 젊은 여성은 남성을 똑바로 쳐다 보면 안 되는 관습도 있었다.

딸이 아닌 아들에 대한 비합리적 욕망 자체는 조상숭배에 근원을 두고 있었다. 소년은 자라서 그 가족의 제주가 되며,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알맞은 제물이 준비되고 있는지, 제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를 감독하는 것을 의무로 삼는다. 소년들을 잘 교육하여 조상을 공경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것은 부모의 큰 소망이다. 조선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따르면, 사후세계에서의 행복은 후손들이 제사를 얼마나 잘 지내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딸들은 원칙적으로 이런 의식을 수행할 수 없어 모든 가족에는 아들이 있어야 하며, 아들이 태어나지 않으면 양자를 들여야 했다.

여인이 시집가서 아들을 낳고 어머니가 되면, 모든 이웃으로부터 축하를 받았고 당시 아들을 낳은 여인들은 자랑스러워했다. 그 여인은 아들 이름에 의해서 그렇지 못한 마을의 다른 여인들과 위치가 구별되는 것이다. 그러나 나라 관습에 비춰보면 그녀는 단지 그것일 뿐이고, 남편이 아내를 좋아하지 않아서 어찌할 도리가 없게 되었을 때, 아내를 내보내거나, 교환하거나, 팔아버리든지 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 정도로 여성들의 인권이 땅에 떨어져 있었으니, 유교의 양반제도와 남성우월주의를 무스는 좋게 볼 수가 없었던 것이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시행을 앞두고 “관계”로 살펴보는 춘천성시화 운동의 의미

조용호 박사(춘천성시연구소장)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진단하기 위해 “관계”를 살펴보기를 제안한다. (※ 필자는 관여하고 있는 단체나 사람과의 친밀도를 수평, 수직관계에 따라 십자형 도표에 표시하면서 내 모습을 보곤 합니다). 신학, 철학이 제공하는 다양한 답변이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나의 정체성은 나를 둘러싼 관계에서 정해진다. 법에서는 법적 의미가 없는 인간관계와 법적으로 규율되는 법률관계로 나눈다. 혼인, 주택구입, 직업선택 등 삶의 좌표가 결정되는 중요한 분야에는 법률이 있어 이를 규율한다. 관계는 수평, 수직 관계와 친밀 또는 갈등 관계로 나뉜다. 사람은 흔들리는 관계 속에서 산다. 젊은 세대가 새로운 길을 떠날 때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 관계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지혜로운가. 4,50대에 최고를 이루던 관계는 차츰 나이가 들면서 정착되고 정리된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관계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다. 이 모든 관계를 바로 세우시는 분이 주 예수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내가 맺는 관계의 최적의 좌표를 결정하시는 분이다. 나의 관계가 수직이든 수평이든 갈등으로 가득하다면 그 관계를 바로잡아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매달릴 일이다. 고관대작을 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어도 욕심에 사로잡혀 관계의 최적 지표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이 많다. 뉴스방송을 잠시만 들어도 알 수 있다. 바울이, 오늘날 선교사가 모든 국내에서의 안정적인 관계를 접고 미지의 땅으로 떠나는 모습에 감동하는 이유는 삶의 최적 지표를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기 때문이다.

도시도 그렇다.

도시, 법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라 부르는 도시도 수많은 관계에 둘러싸여 있다. 게다가 도시를 둘러싼 관계는 사람처럼 은밀하거나 복잡하지 않다. 대부분 법령관계이기 때문이다. 시장과의 인간적인 친밀도는 개인적 차원의 인간관계이지 지방자치단체가 맺는 공적 차원에서 볼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집행하고, 조례와 같은 자치법규를 만들어 주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만드는 주체이다. 도시는 개인적인 인간관계에 기반을 두지 않는다. 공적 차원의 관계에 기반을 두어 정 책을 만들고 법령을 집행한다. 도시는 법령관계의 집합소이다. 얼마 전 나는 강원도의 OO군의 의뢰를 받아 10일간 머물며 OO군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살펴본 일이 있다. 이 일은 내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10여 년 전 법제처에서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입법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자치법제과를 신설할 때 초대 과장으로 일하면서, 어느 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그 도시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분석하



고 그 관계가 시대에 맞고 정당하게 형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싶다는 소망을 가진 적이 있었다. 그러나 어느 조직이 그렇듯 이런 이상적인 목표는 수행하기 어렵고 당장 눈앞에 펼쳐진 갈등 현장을 조율하느라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퇴직하고 이런 기회가 주어질 줄이야, 꿈엔들 생각이나 하였겠는가? 뛰어난 현장 지식을 가진 공무원분들과 토론하고, 그분들이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자료를 새벽 2-3시가 넘도록 살피면서, 제1차 목표로 시대에 뒤떨어진 사례를 정리하고 이를 바꾸는 특별한 법제를 마련하였다. 북녘의 동해 바다 바람이 부는 고성의 밤하늘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일의 엄중함이 이때보다 더 한 적이 있었을까. 맡겨준 일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아침이면 자전거를 타고 저녁에는 바닷가를 산책하며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는 시간을 보냈다.

남북으로 두 동강 난 도시. oo군은 점경지역법, 군사시설보호법, 산지관리법, 그것도 모자라 민북지역 산지특별관리법, 관광조차도 DMZ라는 접두어가 붙어 있는 도시다. 서울이라면 어떠했을까? 회사법, 공정거래법, 건축법, 도시재생법, 도시공원법, 교육법... 도시의 법률관계는 이렇게 도시의 정체성을 보여준다.

춘천을 형성하는 법률관계의 모습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여건이 먼저 들어온다. 수도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대표되는 수도법과 한강수계법, 수도권과 쉽게 연결되는 철도와 고속도로 등 교통 인프라 관련 법, 그리고 인문 자연환경이 보인다. 2개의 종합대학으로 대표되는 교육법, 맥국과 같은 오랜 역사와 한양의 별장도시가 적절히 배합된 도시구조로서의 건축법, 도시개발관련 법, 험준한 산지와 군사시설이 자리한 산림보호와 군사시설보호법, 그리고 분단 강원도의 수부도시. 춘천은 지금 바른 좌표에 있는가.

춘천성시화 운동, 도시 좌표를 찾아주는 일이다.

요즘 강원특별자치도법 시행을 앞두고 시, 군이 “특별대우”를 요구하는 소리가 퍼지고 있다. 과거 세종시처럼 도지사가 삭발하고 주민이 데모하는 막무가내의 떤법으로 전개되지 않고 있어 다행이다. 법률관계는 정체성을 기반으로 형성된다. 춘천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그 정체성을 기반으로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나갈지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 2022년 올해는 춘천성시화 50주년이다. 지난 1년 실행위원이자 기획팀으로 참여하면서 춘천과 춘천에 있는 교회의 특별한 역할을 생각해 보았다. 교회 내적으로는 영성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인간은 영적 존재인지라 데이터에 의하여 지배받는 시대가 다가올수록 영성은 더욱 가치를 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교회 외적으로는 영성을 교회에만 가두지 않고 사회에 기여하고 지혜롭게 개입하기를 바란다. 교회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교회 안에서 활동하시듯 교회 밖으로 나오시기를 기대한다. 지난 6월 지방선거를 거치고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법 시행을 앞두고 춘천은 지금 좌표를 찾고 있으며, 전문가들도 길을 찾지 못하고 아이디어만 난무한 상황이다. 춘천성시화운동은 춘천의 좌표를 정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동식물에 이름을 달아주는 지혜로 춘천의 이름표를 달아주고 향후 30년은 매진할 역할을 새롭게 부여하는 일을 해야 한다. 춘천성시화운동본부는 물론 전교회가 춘천이라는 도시를 머리로는 냉정하게 바라보고 가슴으로는 애정을 가지고 기도할 시간이다.



안 되는 식당

(주인은 모르지만, 손님들은 다 알고 있다.)

이관형 권사(춘천 한길교회)

간장게장을 무척이나 좋아하는 필자는 4년 전 (방송 청탁을 받지 않는다는) TV 프로그램에서 소개한 계장 맛집을 찾아 멀리 전북 전주까지 직접 찾아간 적이 있었다. 하지만 모든 게 엉망이었다. 맛도 가격도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돈이 아까워 무한리필 서비스가 된다는 막걸리를 퍼마시고 싶은 심정이었다. 이곳 춘천 맛집 소개 TV도 예외는 아니다. 대체 누가 방송국에 소개시켜 주었는지 정말 그것이 알고 싶다. TV에서 소개하는 일부 맛집을 살펴보자면 친절한데 음식 맛이 아주 형편없는 곳, 음식 맛은 괜찮은데 불친절하고 비싼 곳, 친절하고 음식 맛도 괜찮은데 식당 내부가 너무 지저분한 곳이 많다. 그러니 아니나 다를까? 소문만 듣고 몰려간 네티즌들이 큰 실망을 한 후 SNS에다 비방 글을 올려 오히려 그전보다도 못한 영업으로 폐업한 곳도 있다.

비단 TV뿐만이 아니라 필자가 직접 방문한 식당 중에는 일회용 마스크를 빨아서 버젓이 식탁 위에 늘어 놓는 식당, 식당 내에 강아지가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는 식당(이런 경우 개밥그릇과 내 밥그릇이 똑같은지 무의식적으로 살펴본다.) 아울러 닭갈비집의 물김치, 분식점의 단무지, 해장국집의 부추무침 등 상차림에서 남은 반찬을 몰래 재활용한다는 내부 고발자에게 들은 첩보와 그것을 직접 목격한 시민들의 말을 들으면 억만금을 줘도 그 음식점엔 절대 가질 않는다. 이 같은 경우의 음식점 공통점은 사장님의 경영 마인드가 많이 부족한 나머지 주방은 어수선하고 바닥은 더럽고 화장실 또한 지저분해서 쥐라도 불쑥 뛰어나올 듯한 분위기다. 필자가 늘 강조하지만, 이 세상에는 더러운 맛집은 없다. 특히 고향 집 같은 맛, 할머니의 손맛, 육쟁이 할머니의 밥집은 위생상 좋지 않다. 그것을 그저 情으로 치부하여 내 건강을 감내할 필요는 없다.

아울러 음식점에서 가장 필요한 조미료는 미원이 아닌 사장님을 포함한 종업원들의 친절함 미소이긴만 어쩌다 틀린 음식점에 사장인지 종업원인지 무표정한 얼굴에 인사성도 없이 의자에 채 앉기도 전에 메뉴 주문부터 하라며 다급히 재촉하질 않나, 주문한 음식이 나오면 아무 말 없이 던지듯 툭 내려놓질 않나, 반찬을 추가하는데 옛날 동사무소 직원 마냥 들어도 못 들은 체하는 태도를 접하면 순간 내가 뭘 잘못했나? 오늘 저 사람 가정에 무슨 좋지 않은 일이라도 있나 하는 오지랖 넓은 귀찮은 생각까지 들게 된다. 그러니 그런 음식점은 아무리 집에서 가깝고 시설이 좋고 맛이 좋다고 해도 팬스레 부담되어 누구에게 소개시켜 주고 싶지도 않다.

하지만 다행히 춘천에는 음식 맛도 좋고 친절하고 가격도 괜찮은 곳이 아주 많다.

올해 들어 필자가 기본 음식점 중엔 스무숲 먹자골목의 '태평소', '석수가든', '큰손', 온의동 '가든파티', 후평동 '대양부양꼬치', '예백촌', '오거리곱창', 요선동 '일흥불고기', '열두달평양냉면', 효자동 '중화루', 동면 '소담촌', 우두동 '황궁쟁반짜장', 명동 '대화관' 등이 있다. 아울러 크리스천이라 불리는 성도들이 경영하는 음식점은 벽에 걸린 성구 액자가 부끄럽지 않게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도록 제대로 해야 한다. 그것이 이웃사랑이며 전도의 첫걸음이다.



기도하는 남자

김춘배 화백(성시신문 편집위원)

교회를 세우며 개척하는 목회자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 축복받고 안정되어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목회 사명을 따라 세움 받는 것이 때론 고통과 고난의 길일 수 있는데, 아마 누구도 상상 못 할 어려움과 고난을 겪는 목회자도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 개신교가 갈수록 부정적인 인식을 주어 깊은 우려를 낳는 작금의 현상을 보면서 목회에 대한 긍정적 시선에도 한계가 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데, 목회자도 사람만큼 고난과 유혹의 수렁과 늪을 피해 갈 수 없으며, 오히려 더 큰 연단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섭리에 온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도 많으리라.

이러한 목회자의 현실적 어려움과 유혹을 정면으로 다룬 영화가 바로 '기도하는 남자'이다. 넷플릭스에서 만날 수 있는 이 작품은 아주 은밀하게 혹은 적나라하게 많은 도전과 고민을 안겨 주는 영화일지도 모른다.



가난한 미자립 개척교회 목사인 주인공 태욱은 순수한

부르심에 응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목회를 시작하여 세상의 가치관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치를 추구하며 살려고 애쓰지만, 이 사람에게게는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요원한 상황이다. 두 딸의 아버지인데 장모의 치료비 5천만 원도 구해야 하는 경제적 난관에 처해 있다. 그래서 대리운전기사도 해가며 사모도 편의점 알바로 근근이 생활을 꾸려 가는데, 월세도 밀리고 전전공공 돈을 빌리러 다니기도 하는 정말 극도의 딱한 사정에 처해 있다. 이러한 중에 거부하기 힘든 유혹과 분노까지 느끼는 목사 와 가족, 과연 어떤 선택이 가능할까.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에 조연으로 왕성하게 활동 중인 배우 박혁권이 고난에 처한 개척교회 목사 태욱으로, 아마도 장편영화 첫 남자 주연으로 인간적인 고뇌와 몸부림을 극한적으로 보여주었으며, 그를 응원하며 유혹에까지 떨어지는 사모로 여러 의미 있는 독립영화들에 출연해 온 배우 류현경이 열연하였다. 제46회 대중상 영화제 단편영화 부문 최우수 감독상을 수상하기도 한 강동현 감독의 야심 찬 장편 데뷔작이다.

기독교 영화로서 말씀과 능력의 간증으로 영적 감동을 기대하며 이 영화를 보면 오히려 상당히 불편한 마음을 가질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창동 감독이 송강호, 전도연 등 화제의 배우를

출연시켜 만든 2007년의 <밀양>과 같은 문제적 영화로, 관객들은 교회의 외형적 화려함과 세속성이 아닌 인간적 진실함에 대한 깊은 메시지와 믿음의 더욱 깊은 속성을 온전히 고민하며 공감하게 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믿는다. 그러니까 이 작품의 엔딩을 통해 관객들은 위로를 얻을 수도 있고, 극 중 인물들의 선택에 분노할 수도 있다. 다양한 해석을 원한다는 감독의 의도처럼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감상하는 것을 추천한다.

그래도 아쉬운 것은 극한의 상황에서 결국 ‘부도덕한’ 선택을 하게 되는 설정은 매우 유감스럽고 현실적이지 않아 욕에 티가 되기도 하다. “이 같은 설정은 인물이 가진 신념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영화의 메시지를 보다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결국 이 영화는 ‘종교의 이야기’로만 국한되지 않는다.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 맞닥뜨리게 되는 절망의 순간, 모든 상황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실감하며 좌절하게 되는 순간, 영화는 바로 이 지점을 조명한다. 그리고 동시에 마음과 신념을 다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하지만 그래서 각자가 나아가려고 하는 그 길이 얼마나 숭고한지 투박한 손으로 위로를 건넨다.”고 네이버 영화소개 ‘제작노트’에서 잘 정리해 보여 준다.



김복동

Salvation 2014-6(290.9×193.7cm)
oil on canvas & wood

옴기는 고난에 대한 문제를 놓고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옴과 고난이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한다는 친구들의 논쟁을 담고 있다. 그 시대에 최고의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느냐는 물음에 하나님은 그의 절대적 주권과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이후 구원자로 오신 예수를 표징으로 보여주신다. 오른쪽 인물은 눈과 다리의 장애를 갖고도 크게 화업을 이뤄낸 존경하는 선배 화가의 삶을 투영시켜 보았다.

그는 군 복무 중 폭발물 사고로 한쪽 눈과 한쪽 다리를 잃었으며 그 후유증으로 매일같이 약을 한 움큼씩 먹어야 고통을 견딜 수 있었다. 그런 힘든 몸 상태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열정을 내어 작업하는 모습은 주변인들에게 도전장을 주고 감동을 주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모든 고난은 궁극적으로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귀결된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주님!'이며, 고통과 고난은 결국 그 한 분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흰점과 붉은 점은 불명확한 가설에 불과한 진화론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이 시대를 향해 주권자와 전능자는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선포하는 방점의 역할을 감당한다.





책속의 책



독서의 계절이 왔다.
뜨거웠던 더위와 유달리 잦았던 폭우로 지쳤던 마음을 좋은 책으로
위로해보면 어떨까?

정숙현 전도사(안디옥교회)

사도신경 신호섭 지음/ 지우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사도신경을 통해 흐트러진 신앙의 기본을 다지고, 삶의 기준을 다시 세우다”

사도신경의 12문장을 각각의 역사적 배경과 각 교리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을 통해 그 본래의 의미를 설명해주는 책으로, 교회 교육과 가정 예배 및 경건 생활을 위한 사도신경 해설서이다. 아주아주 친절한 이 사도신경 해설서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더 성숙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선행과 상급 마크 존스 지음/ 오현미 옮김/ 이레서원

저자는 그리스도인에게 선행은 선택 사항이나 의무 사항이 아니며, 선행의 여러 이유가 있지만, 삼위 하나님을 독특한 방식으로 영화롭게 할 뿐 아니라 자신과 이웃에게도 복이 되는 상급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 이야기 한다. 선 자체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라고 명하신 하나님, 선행에 대한 상급을 가르치는 성경.

마크 존스의 이 책을 통해 선행과 상급에 대한 편견 없이 올바른 이해를 갖게 되었으면 한다.



마음의 길 헨리 나우웬 지음/ 윤종석 옮김/ 두란노

사막 교부들의 영성을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여 일상에서의 영성 훈련을 위한 지침서다.

갈수록 복잡해지고 부패해지는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고 자신과 타인을 세울 수 있으려면 고독과 침묵, 기도의 끈질긴 훈련을 강조한다.



기침 민간요법

이시형 원장(이시형 한의원)

만성질환으로 오랫동안 침 치료를 받는 아주머니 한 분이 요즘 날씨가 추워지면서 감기에 걸린 후 목에 가래가 끼고 약간의 기침이 지속된다고 한다.

만성질환으로 복용하는 약물이 많기 때문에 따로 한약은 복용시키지 않았지만, 집에서 간편히 먹을 수 있는 민간요법에 대하여 알려드렸다.

요즘 제철 과일 중에 배가 많이 나오고 있다. 배의 효능은 성질이 차고 서늘하며 맛은 달고 시다.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의 가슴속 열을 내려주고 목이 마르며 갈증이 날 때 효과가 있고, 아울러 기침과 담을 없애 주는데도 효과가 있다. 동의보감에도 기침이 오래될 때는 배의 속을 파내고 그 속에 꿀을 넣어 끓인 뒤, 마시면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식탁에 오르는 음식 중에서는 도라지가 있다. 한약명으로는 길경(桔梗)이라 불리며 성질은 약간 따뜻하고 맛이 쓴 것이 가래를 삭이고 고름을 제거하는 효능이 있다. 한방 처방에는 감길탕(甘桔湯)이 있는데 주로 목이 아플 때 쓰인다. 목이 아프거나 부을 때 감초와 도라지를 같은 분량으로 해서 달여서 복용한다.

아주머니에게 배와 도라지를 같이 끓여서 복용을 권유했는데 몇 주가 지난 후 아주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가래와 기침이 아주 좋아져서 아예 달여서 팩으로 계속 복용하신다고 한다. 그리고 팩 여러 개를 한의사인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

배는 성질이 차기 때문에 오래 복용하면 속이 냉해져서 소화불량, 설사를 일으킬 수 있어 소화력이 안 좋은 사람은 오래 먹지 말아야 한다.

요즘은 민간요법이 널리 알려져 집안에서 한두 가지의 민간 약재를 복용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민간요법은 단일 약재를 지속해서 복용하므로 몸이 약재로 인하여 편중될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없었던 증상이 나타나면 일단은 복용을 중단한 후에 증상을 살펴야 하겠다. 혹 약으로 인한 부작용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떤 증상으로 인해 민간의 약재를 복용하여 호전되면 더 이상 장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듯 싶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춘천시시화운동을 위해 후원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개인

가천홍	강은주	경동현	고순덕	고순화	고정희	곽복연	곽해옥	곽 한	국주영	권경애	권양희	권여림	권영자	권용인	권혁자	권혁재
권현정	김경순	김경애	김경희	김관수	김교성	김금교	김금란	김기영	김기자	김다정	김도희	김두철	김매순	김명선	김명희	김문수
김미경	김미라	김미숙	김미향	김민섭	김보경	김복심	김복자	김상욱	김상화	김상수	김설아	김성국	김성희	김세환	김수연	김수일
김숙희	김순덕	김순옥	김순월	김순희	김영관	김영명	김영수	김영순	김영일	김영태	김영희	김예은	김옥분	김옥선	김용배	김용선
김웅기	김원중	김은아	김은희	김정자	김정미	김정숙	김정애	김정의	김정희	김종복	김종숙	김종옥	김종익	김종찬	김종희	김주봉
김주혁	김주형	김지영	김준하	김태균	김학자	김향자	김현주	김현철	김형욱	김혜란	김화분	나정희	남궁영숙	남궁자	남준섭	남하은
노길자	노윤미	노정희	류현구	문현숙	민경원	민병순	민병일	박갑출	박건섭	박금화	박금희	박남영	박노향	박덕남	박동호	박동환
박만규	박영관	박문순	박미선	박미자	박미정	박상준	박상혁	박선옥	박소영	박소원	박숙영	박순덕	박순배	박애자	박영민	박영호
박옥화	박윤철	박은경	박은혜	박인관	박정란	박종일	박주환	박지인	박지혜	박지환	박창범	박춘자	박필상	박 현	박형덕	박해성
박 희	박희상	방진선	배영순	배미정	배진철	배한나	배한솔	백광일	백준학	서경숙	서모식	서성진	서순옥	서연숙	서은아	서현애
석지찬	성숙자	성완경	성화숙	손병서	손인규	손임순	손학관	송갑수	송근영	송미화	송수정	송영인	송정심	송창근	신건호	신경자
신금호	신달호	신동경	신미연	신성규	신안섭	신영선	신옥섭	신옥자	신은수	신종길	심규향	안순연	안한나	안현주	양봉남	양재순
양혜경	여금옥	엄근혜	엄기중	엄기홍	엄혜련	여경구	연승훈	연정화	염은희	염정원	오성남	오성애	오소연	오제영	오홍금	오홍수
용애중	용영옥	우혜진	원병열	원선미	원예슬	원유미	원화숙	원희정	유 근	유나예	유동열	유병준	유성현	유영재	유용근	유재만
유점선	유정순	유정희	유희자	윤금숙	윤기춘	윤영숙	윤서경	윤성자	윤애자	윤영기	윤은미	윤은옥	윤정녀	윤정희	윤학병	윤홍목
이가현	이광재	이광필	이규현	이기환	이동현	이명숙	이명순	이무식	이문희	이미숙	이미영	이병림	이병일	이병철	이봉원	이선임
이성도	이성숙	이소영	이숙희	이순자	이승희	이연화	이연희	이영규	이영순	이영윤	이영준	이영진	이옥순	이완래	이윤숙	이윤숙
이원일	이윤규	이윤주	이은경	이인숙	이재곤	이재선	이정미	이정옥	이종완	이종현	이주영	이지영	이지은	이진주	이창주	이천희
이춘선	이충훈	이태우	이하경	이한수	이현식	이현아	이혜란	이혜옥	이효민	이희화	임덕수	임미화	임소희	임소희	임성용	임윤희
임인숙	임재철	임정용	장경수	장기영	장동자	장소영	장준용	장지원	장진순	장창순	전수진	전유배	전정희	정계지	정국환	정규시
정금옥	정영옥	정복례	정복희	정선문	정성옥	정우진	정유빈	정은순	정은주	정은하	정인선	정인숙	정인숙	정재인	정종승	정주향
정지혜	정진호	정지웅	정현우	조경태	조경자	조남진	조돈산	조상균	조성경	조소현	조양숙	조영순	조영자	조원순	조은비	조정섭
조정일	조종현	조진경	조현옥	주명호	주신자	지영필	지운용	지운성	지정훈	차유진	차재옥	채재관	천향호	최광우	최귀숙	최돈식
최동규	최명기	최문수	최미정	최미혜	최민기	최민희	최선이	최선혜	최선희	최성현	최소희	최승경	최승태	최화화	최연화	최영순
최영희	최애생	최옥순	최윤영	최은숙	최은순	최인숙	최재중	최정락	최종대	최종인	탁광희	피종호	하원자	하윤옥	하은희	한영수
한성우	한순숙	한원순	한정순	한정연	한희현	함서현	허순영	허 업	허인영	허정자	현연희	현재용	홍기수	홍순복	홍영숙	홍은숙
홍의표	홍인숙	홍춘애	홍택기	홍혜림	황금심	황기현	황병찬	황은주	황정숙	황태홍	황병구					

후원교회

감 리 교 회	강 변 제 일 교 회	강 원 침례교 회	가 성 침례교 회	그 말씀양문교회	금 산 교 회
나 능 성결교회	동 신 장로교회	바른빛장로교회	사 랑 의 교 회	사 암 성결교회	새 춘 천 교 회
석 사 감리교회	소 양 성결교회	소 양 제 일 교 회	순 복음열린교회	순 복음제일교회	순 복음조은교회
순 복음춘천교회	신 복 교 회	신 성 감리교회	아 미 교 회	임 마 누 열교 회	염 마 오 교 회
여의도순복음춘천교회	예 사 랑 교 회	예 수 춘 교 회	옥 산포침례교회	온 누 리 교 회	우 두 감리교회
주 의 숲 교 회	주 찬 양 교 회	주 향 장로교회	축 복 교 회	춘 천 광명교회	춘 천 광영교회
춘천그리스도의교회	춘 천 명 성 교 회	춘 천 동 부 교 회	춘 천 예 담 교 회	춘 천 우 리 교 회	춘 천 은 평 교 회
춘 천 은 혜 교 회	춘 천 일 신 교 회	춘천중앙성결교회	춘 천 제 일 교 회	춘천제일장로교회	춘 천 침례교회
춘 천 평 화 교 회	하 늘 평 안 교 회	한 빛 교 회	한 을 섬 김 교 회	힐 동 교 회	화 목 교 회
후 평 제 일 교 회	춘 천 광 장 교 회	산 슬 교 회	산 천무지개교회	제 자 감리교회	하 늘 기쁨교회
성 광 교 회	섬 이 있는 교 회	암스트롱병원교회	춘천효자감리교회	효 신 교 회	초 대 교 회

후원기관 및 사업체

JDM 건강사회를위한시민연대 매일관광 베드로선교센터 설곡산기도원 아가갤러리 영광의원 월드비전 춘천CBMC 춘천와이신협
철락의 기쁨 행복재가요양기관 ▶명단(단체)에 누락이나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연락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T.033)256-1260 H.010-9698-2993 / 후원계좌번호:신협 131-005-937566(춘천시화운동본부)

창간 1998년 9월 15일 발행인 이사장 이수형 편집장 최상도, 이관형 편집위원 이연희, 이영규, 김춘배, 정숙현, 김진솔

편집·발행 춘천시화운동본부 주소 강원도 춘천시 서면 금산리 1019 문의 (033) 256-1260 팩스 (033) 257-1260

메일 holycc1972@daum.net

*본 매거진은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 매거진에 실린 글, 사진, 그림 등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드림애드에 있으며 허락없이 본 매거진의 콘텐츠를 임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나 복사는 불법이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시합창단

하나님을 예배하고
 춘천을 사랑하고 노래하는 춘천성시합창단입니다.
 성시합창단을 통하여 아름답고 거룩한 도시
 춘천을 만들어 갑니다.
 함께할 찬양 동역자 성도님들을 모십니다. 많이 오셔서 같이
 클래식 합창의 기쁨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가곡, 오페라, 성가곡 등 다양한 장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섬기고 있습니다.

사역일정

- 22년 10월1일(토) 오후4시 경북도청 문화예술회관 『임동진목사와 함께하는 토크쇼』
- 22년 12월10일(토) 오후4시 경북도청 문화예술회관 『개물과 크리스마스』
- 23년 하반기 춘천문화예술회관 『임동진목사와 함께하는 토크쇼』 예정

단원모집

대 상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
활동내용 찬양곡, 클래식 및 가곡 배우기, 발성 및 노래 개인 지도함
 정기연주회(연 1회) 및 특별 연주회(수시)공연
연습장소 춘천 상현교회 본당(춘천교대앞)
연습시간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 9시
모집인원 소프라노 | 알토 | 테너 | 베이스 각 〇명
모집기간 수시
문 의 단무장 010-2529-6193 / 총무 010-8977-2323

E-mail marjbutt@gmail.com Homepage <http://holychoir.net/>



JDM개척 45주년·강원CBS개국 27주년 기념 초청 뮤지컬



세상을 구원할 단 한 권의 책!
덮으려는 자, 그러나 펼치려는 자!



MUSICAL
THE 더북
성경이 된 사람들
BOOK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

1회_10월 6일(목) 저녁 7시
2회_10월 7일(금) 저녁 7시
3회_10월 8일(토) 오후 2시
4회_10월 8일(토) 저녁 7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격 ~~35,000원~~ → 20,000원 (전석)

예매 및 문의 010-2561-2819, 010-2742-2819

|주 최| 강원CBS, 예수제자운동(JDM)

|주 관| 예수제자운동(JDM)

|제작·기획| GAM-Gwangya Art Ministry
(문화행동 아트리, 문화동행 아티스, 극단광야)



예매 바로가기

Jdm
예수제자운동

강원 CBS



춘천기독교 120년사 출간기념 춘천 기독교사 학술세미나

“강원도와 춘천의 기독교 전파와 그 사회적 역할”

일정 9.27(화) 오후 1시 장소 한림대학교 국제회의실

사 회	노성호 (한림대학교)
기조강연	이덕주 (조선대학교) 강원도와 춘천의 기독교 전파와 그 역사적 의미
발 표 1	해방 직후 강원도 건국준비위원회와 기독교 발표: 박영수(서울신학대학교) 토론: 양찬호(강원대학교)
발 표 2	6.25 전쟁 기 강원도 기독교인의 사회적 역할 발표: 김동정(가톨릭대학교) 토론: 피기춘(충북대학교대학원)
발 표 3	1970년대 이후 춘천 기독교와 함께한 사회활동 기념영상: 김연호 목사를 가리며 발표: 황정호(예일대학교목회학사) - 강원도의 춘천성교회 운동의 사회 발표: 박인관(강원도의 목사) - 1990년대 춘천기독교 연합운동의 결성과 성장 (춘천기독교연합회, 물리클럽, 성서화운동본부)
종합토론	오의석 (순복음조은교회 목사, 춘천기독교 120년사 편찬위원장) 토론자: 김성호(여주대학교 영예목사, 이병철(세종대학교 2009년사) 최성도(춘천기독교 120년사), 심재민(한림대학교)

* 학술세미나 참석 여부를 연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춘천성서회운동본부 (전화: 목사 010. 9698. 2993)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발행처: 목사 010. 2483. 1470)

주최 춘천성서회운동본부 춘천기독교 120년사

주관 춘천기독교 120년사 편찬위원회

후원 강원도 CBS



춘천성서화운동 50주년 기념 포럼C

“성서화운동의 나가야 할 길”

일정 9.29(목) 오전 10시 장소 강원CBS 공개홀

사 회	이병철 목사 (주한교회)
인사말	이수형 목사 (순복음춘천교회)
기조강연	장현일 박사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원장 신생원대 무교회 목사) 방향: 앞으로 교회가 가야 할 방향
발 표 1	전교회가 함께 하는 성서화 운동 “교회 연합의 현주소를 돌아보며” 발표: 최영조 목사 (갈렐리교회)
발 표 2	춘천성서화운동본부의 미션과 성과평가 도입방안 조용호 소장 (성서화운동연구원)
발 표 3	네트워크를 통한 성서화운동 박인관 목사 (강원교회)
종합토론 사회 (토론자)	박운경 에나문서 (강원CBS) 박인관 목사 (강원교회), 이병철 목사 (주한교회), 최영조 목사 (갈렐리교회), 최성도 목사 (사일교회) 조용호 소장 (성서화운동 연구소)

문의 | 춘천성서회운동본부(김환 목사 010. 9698. 2993)

주최·주관 | 춘천성서회운동본부

후원 | 강원 CBS



어머니연합기도운동

마마클럽

2022 온·오프라인 **말씀부흥회** **춘천마마클럽 발대식**

말씀과 기도가 이끄는

회복

(녹12:49)

2022.11.29(화) 오전 10시 - 오후 1시

현장 기도회 | **순복음춘천교회**

온라인 참여 |  **YouTube** 방송 **마마클럽**

주관 |  춘천마마클럽 주최 |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춘천기독교연합회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

협력 | 강원 **CBS** **CBS** 강원방송

강사 | **이건호** 목사 (순복음대구교회)

